

## 축산업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부정한 멕킨지 연구보고서를 즉각 폐기하라!

우리 축산농민들은 농협경제연구소의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골자로 하는 멕킨지 보고서 발표 소식을 접하고, 가히 충격에 빠져있다.

보고서는 내년 초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을 떼어내 금융지주회사를 만들고 2011년에는 경제사업을 총괄하는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신용사업만을 위해 금융지주회사를 만들어 자본금을 쏟아 넣겠다는 것이다. 경제사업을 도매사업 정도쯤으로만 치부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으로 협동조합 정신의 근간을 흔드는 우(愚)까지 범하고 있다. 외압에 등 떠밀려 농협개혁의 근본취지를 망각한 것이라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축산업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상징하는 축산경제부문을 신경분리 과정에서 기능을 축소하여 농업부문에 흡수시켜 1개 부서로 전락시키겠다는 음모까지 포함되어 있다. 농민이 주인인 농협 개혁에 있어서 축산농민들의 목소리는 정말 안중에도 없다.

농협법 개정안 발표에서 금번 연구용역 결과 발표까지 막전막후(幕前幕後)를 살펴보면 축산농민의 목소리는 철저히 배제되어 왔다. 농축협 통합정신과 축산업의 독립성을 설명하기에도 지쳤다. 금번 연구결과는 농협법 조항에도 버젓이 살아있는 축산경제사업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부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違法性)이 농후하다.

미산 쇠고기 수입재개와 사료값 폭등에도 살려고 발버둥 치는 축산농민들의 고통은 딴 나라 얘기가 아니다. 농협중앙회가 농민을 위한 조직으로 환골탈태(換骨奪胎)해도 시원찮을 마당에 이제는 축산농민들을 사지로 내모는 작태는 아니지 않는가. 농협중앙회는 반농민적 멕킨지 보고서를 즉각 폐기하고 지금이라도 농협개혁의 근본모습으로 돌아가라! 우리 축산관련단체들은 계속적으로 축산업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부정하는 사태가 지속될 경우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2009. 3. 18

축산관련단체협의회